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후 (3부) 2시
오후 (4부) 7시30분
금요일엔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6월 30일 (제696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엔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칼럼

오해하지 말라

친 아들 들에 믿음의 아들이 셋인 어느 목사가 있었다. 그 목사는 그 중 믿음의 큰 아들을 유독 사랑했다. 다행히 그는 일류대학도 가주고, 주의 종이 되어서 더욱 기대가 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이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목사는 '그 아이는 공부할 때다. 공부한 후에 결혼 해도 늦지 않다'고 만류했지만, 아들은 목사에게 마귀라고 까지 하면서 결혼을 고집했다. 목사는 때리면서 말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결국 승낙했고, 주례를 서주며 축복했다. 그런데 목사가 한 꿈을 꾸었다. 아들을 위해 패물과 집도 장만을 해줬는데 아들이 그것들을 밭길로 차고 나가는 꿈이었다. 목사는 이에 "너희 앞날이 평탄치 않다."고 경고했지만, 아들은 이미 귀가 먹은 상태였다. 그렇게 10년, 목사 곁을 떠나 세상에서 살던 아들이 목사를 찾아와 아내가 떠나고 두 아들과 지하방에서 생활한다고 울면서 말했다. 목사는 아들을 감싸며 말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가 잘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 갚아주시지요." 목사의 막내아들에게 하나님은 내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 그 결과 가정은 흔들리고, 육체의 고통과 사업실패 등 큰 아픔과 좌절을 겪었다. 그 목사는 막내아들에게도 말했다. "네가 잘 되면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시지요?" 그 말에 막내아들은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냐며 목사에게 대들었지만 운갖 종파를 겪고서야 두 손 들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 목사는 아들을 기꺼이 맞아주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6:1). 이것은 우리가 만일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발 오해하지 말라.

교회는 영적 대중목욕탕이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충격, 충격, 충격 그 자체였다.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있는 일일전도집회에는 분당 크기로는 대구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대성전에 자리가 없어 아우성일 정도로 가득차고 넘쳤다. 목사님조차도 그 정도일 줄은 미처 예상치 못하셨던 듯하다. 목사님이 방문하신다고 준비는 했었지만 수요일예배에 얼마나 사람이 올지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대구예수중심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점이 있다. 답답 한숨이

특히 이날 많이 참석한 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핵심들을 알기 쉽게 가르치셨다. 특히 교회를 목욕탕에 비유한 설교가 새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전도를 하다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며 교회 나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때가 없는 사람은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지요.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더러운 몸을 씻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곧 영적 대중목욕탕입니다. 여러분이 70, 80 평생 단 한 번

목사님은 부산 경남권에 이어 대구 경북권에 대한 공약을 멈추지 않으셨다. 배방예수중심교회 일일전도집회 후, 목사님은 또한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도 일일전도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바로 대구로 향하셨다.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부터 꿈꿔 오셨던 전국 순회 집회의 비전은 국가 사회간접자본, 곧 KTX의 정점으로 그 가시화가 앞당겨질 듯하다. 대구까지는 2시간도, 광주, 부산까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시대이고, 앞으로 기술의 진보가 더욱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은 더



대구예수중심교회 일일전도집회 광경(2013년 6월 19일)

목사의 식지 않는 열정이다. 여인의 몸으로 3천여 성도를 이끄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에 안주하지 않고 대구 Exco로, 또 메인스타디움으로 그 비전의 지경을 끊임없이 넓혀가려는 열정이 놀라웠다. 부산 Bexco를 방문한 소감을 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과 함께 돌아본 부산은 매우 매력적인 도시였고, 특히 Bexco는 너무도 훌륭한 시설이었어요. 대구에서 가깝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을 만큼. 처음 소천하신 김보석 목사님과 함께 대구 목요집회를 열었던 그 시절의 열정과 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처럼 목사님께서 매주 대구에 오셔서 집회를 여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한 목사의 꿈은 말뿐이 아님을 이날 집회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 중

도 몸을 씻지 않았다 해도, 목욕탕에 가서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면 때는 하수구로 다 흘러내려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치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라는 영적 목욕탕에 오셔서 예수 이름의 비누로 죄를 깨끗이 씻기 바랍니다. 영적 때밀이인 목사, 전도사들이 여러분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줄 것입니다." 구수한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흥겨운 잔치에 초대받은 하객들처럼 기쁨이 가득하였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하셨을 것이다. 집회를 배설하는 이의 수고와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2주간의 멕시코 대장정을 앞두고서도

욱 단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집회와 과중한 체력부담으로 인해 스케줄 조정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이러한 전국 순회 집회 계획은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목사님의 이번 부산 경남권과 대구 경북권에 대한 시도는 그러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목회 초창기부터 꿈꿔왔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다지기라 할 것이다.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교회 목회자들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서울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김하영 목사의 부산 파송은 제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사님의 강한 원인이 담겨있다 할 것이다. 교단 목회자들의 열정이 다시금 불붙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듯,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사면의 꽃이 만발하는 성령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멕시코 집회

▶일시: 6월 25일(화) ~ 7월 9일(화) ▶장소:알바라도 & 마쿠스파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55:6~11)



하나님의 생각을 착각하지 말라

언젠가 서울교회를 담임하는 이시대 목사가 타고난 신문과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읽은 후에 가슴이 뚫렸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나는 꿈이 없다'였습니다. 이시대 목사의 말인즉, '나는 꿈이 없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꿈이 내 꿈이고, 총회장 목사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다. 나는 총회장 목사님이 하라하면 하고, 하지 말라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시대 목사의 말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는 오로지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육의 동생이지만 그 말에 저는 감동했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시대 목사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박사들에게 "이 도자기를 깨뜨려놓으시오." 하고 외국 집회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도자기가 아직도 멀쩡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불러서 "내가 이 도자기를 깨뜨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귀한 도자기를 왜 깨뜨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즉시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아저씨, 이 도자기 좀 깨뜨리세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는 나가서 망치를 가져와 한 방에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깨뜨리라고 하면 그냥 깨뜨리면 되지 왜 분석합니까? 당신들의 이론과 논리가 병폐의 원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론과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2천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삿7:1-8). 하나님은 그들도 많다 하셨고, 물을 손으로 핥아먹는 3백 명만을 차출, 그들을 전쟁에 투입시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드는 일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만 2천명은 때뚜기 때처럼 많은 적을 상대하기에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 하라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금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 하

였다 할 까 함이니 라"(삿7:2). 만 일 3만 2천명의 장정은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승리에 취하여 하나님을 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 대신 영광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아껴보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중 좋은 것들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사울은 좋은 것은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삼상15:15).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땅끝에수전도단 회원 중에 미국 간호장교로 중령까지 올라간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 집사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실 그 집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아니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는 군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가차 없이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가 복종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와 함께 하사 무사하게 지키셨고, 근무기간도 단축시키셨으며, 진급하여 더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군에서도 불복종하면 징계가 있는데 하물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요나를 봅시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데에는

요나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 습니다. 앞 수 트 인 들 의

잔악 무도한 행동을 하 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는 것으로 민족감정상 도무지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한 요나를 용서치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가둬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버렸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시니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안 오는 지 알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지리지 궁상을 떠는 친구를 만난 어느 사람이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준다고 자기 집으로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는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와 지붕에 올리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외양간의 소를 지붕에 올리느라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친구가 "이봐, 왜 말도 안 되는 일로 식구들을 고생시키는가? 어떻게 소를 지붕에 올릴 수

있어?"라고 했지만 친구는 뒷집만 지고 있을 뿐입니다. 친구는 하는 수 없이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한참동안 난리법석을 떠는데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다시 소를 외양간에 매놓아라." 그러자 식구들은 그제야 땀을 닦으며 소를 끌고 갔습니

종에게는 의지가 없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다. 그런데 누구하나 왜 이런 일을 시켰는지, 그리고 왜 중단하는지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젠 자네 집에 가서 내가 한 대로 똑같이 해보게." 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식구들을 향해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와 지붕에 올리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아니, 소를 어떻게 지붕에 올리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했고,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친구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자네 가정에 복이 안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 먼저 순종을 가르치면 복은 절로 온다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마28:18).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식을 드러내고, 내 경험을 논하는 것은 성경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롬8:9). 더뵈어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8:7)고. 그러므로 내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우리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오직 '예' 합시다(고후1:20).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새것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연구 분석하는 자들을 향하여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하면 하고, 하지 말라하면 하지 않는 것이다.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하면 서는 것이다."

가끔 살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게 아닌데, 내가 배운 바로는 그게 아닌데, 내 경험상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시나 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기드는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았는데, 그 때 모인 사람이 3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아버지와 낚시

어렸을 때의 기억들, 아련한 추억들,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시간들. 유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분 좋은 기억들, 우리 아버지와 낚시.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셨다. 물론 나도 낚시를 좋아한다. 뭐 거창한 바다낚시나 어느 영화에서처럼 메트로놈을 켜놓고 지휘하듯이 하는 플라잉낚시는 아니다. 원래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바다낚시, 노지낚시, 어망으로 낚시를 하지 않으셨다.

5월에서 9월 사이, 아버지와 나는 엄마 몰래 준비한 낚시대를 들고 우리의 성지인 춘천댐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의 몇 배에 가까운 낚시대와 이삭집을 방불케 하는 짐을 들고서, 기껏해야 1박2일의 여행이었음에도 아버지와 난 항상 그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손맛보다는 그 곳의 공기를, 하루면 무느뜨릴 낭만을 좋아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너울대는 호수를 좋아하셨고, 산들대는 바람을 즐기셨으며, 밤과 새벽 사이의 별빛들과 안개들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대가 휘청할 정도로 낚시대를 여러 개 펼쳐 놓고 있으면서도 물고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온 적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무사히(?) 일찍 없는 밤을 보내면 아버지와 난 조금은 더 성장한 사람처럼 새벽을 맞는다. 자연의 소리를 충분히 만끽하고 힘들었던 일들은 지워버린 채, 물고기들에게 상처주지 않음을 뿌듯해하고 이 모든 여행의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손맛 없는 낚시 여행을 기분 좋게 끝낸다. 이것이 아버지와 나의 낚시여행 규칙이었다.

언제나처럼 유월은 돌아오고 낚시의 계절은 찾아왔지만 지금 내 곁에는 아버지가 없다. 시집을 때 가져온 내 추억들은 배란다 한 귀퉁이에 정리되어 있지만... 이제 나도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 있다. 그 시절 아버지의 나이가 된 것이다. 이제 슬슬 움직일 때이다. 유월이 시작되었고 지난겨울에 틈틈이 써도 깎아 놓았다. 손맛 없는 자대를 그려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했던 아버지를 그려본다.

그리움... 언제나 함께할 것만 같았던 아버지, 좋은 추억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그리움으로 변한다. 아버지와 좋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리움은 낚지만, 후회는 낚지 않았다. 그리고 새삼 깨닫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사랑하고, 지금 더 많이 행복해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감사하리라. 그리고 노래하리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그림세종 예니

자긍심을 갖자

근자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과 교육이 문제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6. 25전쟁을 한미가 유도했다, 북침이다' 라고 답변한 학생이 꽤 많았다고 한다. 이는 공교육의 안일함 때문이다. 오직 임시위주의 교육만 강요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선택과목이 되다 보니 대학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한국사를 누가 채택하겠는가? 이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임시위주의 교육만을 조장한 국가의 책임이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 같다. 정체성이 상실된 나라, 정체성을 잃은 민족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 국가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될 때,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감과 애국심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뿌리는 어딘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정체성

(正體性)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을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대다수의 크리스천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밖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다니는가?"라고 질문 했을 때, 상당수가 그러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호한 정체성이다.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온 권세가 있다." 이런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믿음이 입대되고, 이 한 목숨 던져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신영서

jesus5526@gmail.com



JC Academy series



귀를 기울이세요

느헤미야의 정신을 가져라

지난 19일 JC 아카데미에서는 이시대 목사의 느헤미야 강해가 계속되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일을 다룬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훼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겹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초부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의 사색을 살핀 왕은 그 이유를 물었고, 이사반만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줬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민을 보내사,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전문가와 함께 밤새도록 성벽 주위, 곧 현장을 돌며 먼저 치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야(느2:11-20) 일을 추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것이 지혜입니다(잠 25:2). 우리도 어떤 일이나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나서 그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그 일을 주도하는 지도자는 이러한 ‘치밀함’과 ‘섬세함’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중건할 때 산발랐고 도비아가 그들을 바우고 멸시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를 먼저 하나님께 고한 후 일하는 자들로 칼과 창, 활을 가지고 일하게 하자 지켜 있던 백성들은 오히려 힘을 내어(4장)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중건을 이루고야 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목적을 세우면 반드시 해방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장촉진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지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에서 ‘5분 대기조’처럼 조직적인 정신력이 있었기에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싸우면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벽 중건을 마친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말씀 잔치를 엽니다(느8장).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들은 백성들이 모두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는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이스

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역사를 쫓아와 보며,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바로서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성벽 중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잔치를 통해 회개케 하고 영혼을 변화시켜 그들로 참 하나님의 아들딸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때, 느헤미야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느헤미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느헤미야처럼 애민사상을 가질 때 국가적인 차원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배움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지식을 갖추길 바란다.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광활한 사막을 걸어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두 사람은 너무나 목이 말라 각자 수통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통 안에는 물이 각각 절반씩만 차 있었습니다. 이 수통을 바라본 두 사람의 표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며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라며 희망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했던 사람은 사막을 다 지나가지 못한 채 쓰러져 죽었지만,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라고 했던 사람은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자”는 구호와 함께 출발했던 2013년이 이제 정확히 반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후회되는 일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은 이미 마쳐버린 물에 불과합니다. 이제 수통의 물은 정확하게 절반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2013년이라는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통의 물은 아직도 반이나,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남은 이 6개월의 물, 어떤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성경에서 배운다::

불안시대, 브니엘로 반전하라!

요즘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불안, 경제적 불안은 물론이요, '공황장애'와 같이 극심한 불안 때문에 심계항진(心悸亢進)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4년 사이 75%이상 증가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근본 씨앗이 마귀에게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그 마음에 공포와 원망의 열매가 맺어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가 놓은 불안과 공포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도피생활을 떠나 20년 동안 고달픈 삶을 살았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리하여 그는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사자들을 먼저 보내 에서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메

시지를 먼저 보냈다(창32:3~5). 하지만 돌아온 답변이 애매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다. 형이 장정들을 거느리고 온다니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일행을 몰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야곱은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피난시켜 절반이라도 살릴 셈이었던 것이다. 또한 자신은 일행의 제일 뒤에 숨어서 따라가며 겁을 잔뜩 먹은 뒤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취한 다음 행동이었다. 그는 두려움 뒤에 계속 숨어 있지도 도피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아뢰고 홀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꾼 것이다. 그가 하나님과 벌인 씨름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름발이가 될 정도였으며, 그렇게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난 후 그의 모습은 이전과 확연

히 달라졌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보고 이제 자신이나 아내와 자식들에 앞서 형 앞에 나아간 것이다. 결국 야곱은 두려움의 대상이던 에서가 오히려 자신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반겨주는 기가 막힌 반전을 맞게 된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던져 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고 담대함과 자유를 얻게 된다. 불안한 마음이 밀려드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구하고 그분의 약속 안에 거하자! 그분은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임을 기억하자!

하인영

renming@daum.net

Good News

인류의 역사 속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는 1999년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예언을 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지만, 그의 예언은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또 영화 '2012'는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우리 나라에서도 지상과 방송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결국은 헛포님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

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살후1:7-9).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날은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기다리고 기

다리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순간일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음입니다. 그 날과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나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막13:32).

우리 생전에 지구의 종말을 보지 못하더라도 죽을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화병(Hwa-Byung)과 운동요법

화병(Hwa-Byung)은 인구의 3~5%, 신경증적 장애 환자 중에서는 약 20~30% 정도의 비율로,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화병은 억울함, 화남, 분함, 한 맺힘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가져다 깔려 있다. 보통은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감정을 참아내다가 쌓이고 쌓여 결국 화병이 발병한다.

화병은 서양 정신의학의 진단들 중 한 가지로 구분되지 않고 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흔히 불안, 초조, 불면, 기타 별 불안장애, 공황 증상, 공포증 등의 심리적 증상과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 마힘, 덩어리 문짐, 열이 치밀어 오르는 등의 고유한 신체 증상을 뚜렷하게 지닌다.

화병의 원인은 가정 내의 문제(남편, 시부모와의 갈등, 자녀문제), 사회 경제적 문

제(가난과 고생, 배신, 돈 때문, 부당한 재판, 가부장적/권위적/남녀 차별적/유교적/폭력적 상황),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 등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화병은 본인의 정신력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소극적 철수, 자기비판 등의 회피적 대처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환자들은 이르든 늦든 결국 화병이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해결되지 않은 억울하고 화난 심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소연한다. 이때 화병으로 화가 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싸움을 걸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화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화병에는 건전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 운동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본인이 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

는 종목이어야 하고, 기본 좋게 피곤할 정도로 시행하면 된다. 운동의 효과는 6주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산책도 건강에 이롭다. 또한 심장 발작, 당뇨병,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고 몸무게와 혈압을 낮춘다. 하지만 역시 가장 흥미진진한 발견은 신체적 운동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화병을 성격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마귀의 작태다. 불안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귀신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8).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Q&A

Q: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한 교구의 나이 드신 성도님 한분이 가족들이 울면 돌아가신 분의 시체가 굳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효통을 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A: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이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족들의 행위가 돌아가신 분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거나 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이겨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였다"(2절)는 기록이 있으며,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아비를 위하여 절일 동안 애곡하였더니"(10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애곡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는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가 굳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들이 울어서 시체가 굳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슬픔을 당해 보을 필요 없고 통곡하는 가족들에게 울음을 그치라는 의도에서 던진 말들이 정실인 것처럼 전해져온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는 것은 무방하지만 믿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은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통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더러운 계명이 아니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